

프롤로그: 「K박사의 연구」의 상상력

강지윤(외부참여연구원, 국문학연구자)

사이언스 월든의 〈똥본위화폐〉, 〈과일집〉 프로젝트를 접하게 되었을 때 작품 하나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1929년 소설가 김동인이 쓴 「K박사의 연구」라는 작품입니다. 김동인은 「감자」나 「배따라기」, 「붉은산」과 같은 유명 작품들을 남겼고, 무엇보다 다수의 한국인들이 학창 시절 국어 교과서에서 그 이름을 자주 들어보곤 했던 작가이지요. 김동인은 바로 직전 세대 한국문학의 거목인 이광수의 계몽주의에 반기를 들었던 인물로도 유명합니다. ‘예술을 위한 예술’이라는 낭만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모토를 들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국 근대문학이 막 태동해 활발한 성장을 하던 시기 그는 열정적이고 야심찬 젊은 예술가를 자임했습니다. 그만큼 그의 소설에는 근대문학 초기의 미숙함이 반영되어 있는 한편 기발하고 인상적인 이야기가 전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1929년에 쓰인 「K박사의 연구」는 김동인의 이런 기발한 상상력이 담겨 있는 흥미로운 소설입니다.

「K박사의 연구」는 한국 최초의 SF소설로도 평가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다소 황당합니다. K박사는 어느 날 세계의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로 합니다. 바로 인분(人糞)을 이용해 식량을 만들겠다는 아이디어를 낸 것이지요. 그는 인분을 수집해 남아있는 영양소를 분리하고 독성물질을 제거해 냄새를 완벽하게 없애기 위한 연구에 몰두합니다. 집과 연구실이 모두 분변 냄새로 가득하고 조수와 식솔들을 고통 속에 빠뜨리지만 쉬지 않고 연구한 결과 K박사는 드디어 냄새가 완전히 제거되고 평범한 음식 맛이 나는 식량을 개발하는 데 성공합니다. 득의만만해진 K박사는 자신의 연구 결과물을 공표하기 위해 공개 시식회를 엽니다. 시식회에 나온 음식의 출처는 감춰진 채 말이죠. 시식회에 모인 사회의 명사들이 음식을 먹은 후 이윽고 K박사는 그들이 먹은 음식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밝힙니다. 충분히 짐작 가능하게도 시식회장은 충격에 빠져 구토질을 해대는 사람들로 아수라장이 됩니다.

한국 문학사상 최초의 SF소설로 평가되는 작품이 똥을 소재로 한 것이라는 사실은 엉뚱하고도 흥미롭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작품이 탄생하게 된 당시의 시대적 맥락을 좀 훑어 본다면 이해가 가는 면도 생겨납니다. K박사가 식량 개발 연구에 착수하게 된 계기는 맬서스의 「인구론」을 접하게 된 때문입니다.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게 됨에 따라 발생할 전지구적 식량난에 대한 공포가 바로 이 같은 연구를 추동한 것이지요. 그런데 맬서스의 「인구론」이 출판되어 파장을 일으킨 것은 1800년대를 전후한 시점이었으니 다소 어색한 설정처럼도 여겨질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인물이 끼어듭니다. 바로 그 당시 산아제한론자로 유명했던 마거릿 생어입니다. 산아제한을 통해 인구 조절의 필요성을 역설한 생어는 맬서스를 자동 연상시키기도 했던 인물로서 낙태 합법화를 주장했다는 점에서 여성인권의 대변자처럼 평가될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장애인과 빈민들의 인구수를 줄이고자 했던 우생학 신봉자이기도 했습니다. 생어는 1920년대 초에 일본을 방문해 산아제한론을 홍보하고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게 됩니다. 물론 식민지 조선의 지식인들에게도 그 소식이 전해졌지요. 말하자면 「K박사의 연구」의 엉뚱해보이는 설정은 이러한 당대의 과학담론과의 관계 속에 만들어질 수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동인은 단순히 당대 최첨단의 과학을 찬양하기 위해 이 작품을 쓴 것은 아닙니다.

작품의 후반부는 K박사가 여론의 뭇매를 피해 잠시 시골에 머물게 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사회적 파장 때문에 피신해 있으면서도 엄정한 과학적 사실과 결과물 앞에서 이성적이지 못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어 합니다. 그의 조수가 아무리 설명해도 그는 사람들의 반응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사람의 인분을 먹은 똥개 한 마리가 다가오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는 이 불결한 동물에게 혐오의 감정이 치미는 감정을 감출 수 없었지요. 그날 저녁 그는 식탁에 오른 고기를 맛있게 먹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고기가 개고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는 끓어오르는 욕지를 참을 수 없는 격렬한 메스꺼움을 느끼게 되지요. 즉 작가는 과학적 객관성으로 모두 환원해버릴 수 없는 인간의 사회적·문화적 구성에 대해 말하면서 과학적 태도가 가질 수 있는 오만을 비판하고자 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첨단의 과학은 혁신을 향해 나아가는 한편 기존의 사회적 가치관과 관습을 따르고 사는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힘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김동인이 극단적인 예시를 통해 문제제기한 과학의 혁신과 사회적 수용 사이의 벽은 이미 꽤나 돌파되기도 했습니다. 인간 및 동물의 대변에서 채취한 균들이 이미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니까요. 아마도 과학의 발전과 더불어 과학의 사회적 수용을 둘러싼 담론이 끊임없이 이 간극을 메우며 작용한 결과겠지요. 우리는 지금 김동인이 살았던 시기로부터 과학의 사회적 위상이 더욱 굳건해진 시기를 살고 있지만 오히려 과학을 설명하고 비판하는 담론의 역할을 더 커진 것 같습니다. 나아가 과학과 인문학, 사회학, 예술 사이의 만남과 교차는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학제적 융합이 원론적인 수사를 넘어서야 하는 것은 분명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처럼 보입니다.

사이언스 월든 프로젝트의 똥분위화폐나 과일집 사례는 저에게 과학, 생태, 경제, 윤리, 예술 영역의 만남을 꽤나 설득력있게 제시하고 있는 예시처럼 보였습니다. 김동인의 시대로부터 90여년이 지난 지금, 식량생산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의 생산 증진을 기조로 삼던 시대의 역풍을 만나고 있습니다. 과잉생산과 기후재난, 그리고 불평등은 이제 과학에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저 불필요하고 난감한 부산물은 이제 정반대의 관점에서 재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서로 먼 거리에 있는 것들을 연결하고자 하는 뛰어난 모험가들에 의한 것이라 점에서는 공통되는군요.